

# 유·초·중·고교생 1인당 도서지원 금액 4만원 조정

### 이번 시범운영 후 효과 검토 내년 예산 반영...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심사 마무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도지사가 제출한 9조 9,077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 9,43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이 예산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지원금 지급(1인

25만원)을 원안 처리했고, 도교육청 소관은 '학생도서(책꾸러미) 지원' 등 8개 사업에 195억4,456만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특히, 학생 도서(책꾸러미) 지원 사업은 당초 유·초·중·고교 학생 1인당 5만원 도서 지원으로 제출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3만원으로 통과한 안을 4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번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사업 효과를 검

토해 지원대상 확대 등 내년 예산안에 반영토록 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생업 현장과 교육 결손을 회복하는데 충분한데 있지만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동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2022년도 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 가운데)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방문해 '전북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좋은 후보, 준비된 후보 도와달라”

###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전북 찾아 호소

글로벌 탄소소재 클러스터  
스마트 농생명 밸리 완성  
확실한 광역교통망 구축  
영화촬영소 영상 거점 육성  
소멸 위기 지역 특별지원 등  
전북 발전 5대 전략 발표

인물이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출 수 없고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는 만큼 대한민국의 그런 변화에 국민이 안심하며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어 "어제 광주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임하겠다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리고 신북지와 중산중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면서 "모든 것을 걸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전북은 제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내의 친정입니다. 좋은 후보 이낙연을 전북도민께서 도와주시십시오."

"절박한 상황"이라고 직접 밝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선 9일 전북을 찾았다.

전주남부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호소와 함께 전북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발전을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탄소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완성 ▲확실한 광역교통망 구축 ▲전주영화촬영소 일대 영상산업 거점 육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 위기 대응 계정을 마련해 전북의 소멸 위기 지역에 특별지원 등이다.

특히 새민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것과 ▲새민금을 광주-전남과 연계해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의 또다른 허브로 키우고 ▲새민금 트라이 포트(Tri-Port)를 조속히 완성 하겠다고 약속했다.

## 새민금청, 중소기업에 신산업 중심 산단 협력방향 제안

새민금개발청(청장 양종모)은 일·한, 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에 참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중 산단인 새민금을 활용한 양국 간 신산업 협력방향을 제안했다.

양종모 청장은 "새민금개발청 출범 이후 교류협력과장은 그린성장파와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민금의 핵심사업 추진상황과 전망 등을 설명하며, 중국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에너지 생산·연구단지'와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계획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의 ESG 활성화와 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새민금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 '저조'

### 13.5%로 광주 95%와 대조... 홍성임 도의원 "모든 학교도서관에 배치해야"

도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를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학교당 1명 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다 돼가도 전국적인 사서 배치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도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율이 13.5%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홍 의원은 또 "도내 학교도서관의 낮은 사서 배치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립학교의 사서 배치 상황이다"면서 "도내 교육공무직 신분인 사서를 포함해 전체 117명의 사서 중 사립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단 3명(계약직 포함)에 불과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문사서 인력으로부터 지

원받을 권리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종합 멀티미디어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직접적인 수업참여와 교과 지원의 기능 등 사서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한층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성임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10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새민금개발 안정적 추진 도모 | 민주 윤준병 의원, 특별회계 설치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9일 새민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민금 특별회계 설치법(새민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따르면, 현재 새민금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새민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새민금개발청사 이전과 새민금개발공사 출범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 이뤄지지 못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새민금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운영 및 예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새민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명시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새민금 개발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이자 개발 이후 재생에너지와 관광 등의 발전을 통해 자체 재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 가능해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서 신영대 의원의 새민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민금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